

종보기도로 시작	다 같 이	(10시 50분)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11시)
목도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찬송	다 같 이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 (통 102장)
기도	담임목사	
알리는 말씀	인도자	
찬송	다 같 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408장) (통 466장)
성경봉독	다 같 이	마태복음 6장 31절~34절 (신약 9쪽)
말씀선포	강역목사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찬양봉현	인도자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봉현기도	강역목사	
축도	강역목사	

증보기도

- 대망의 2018년 남은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병사에 감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주님의 몸 된 새언약 교회 가족"이 되도록.
- 새언약 환우들과 기도가 필요한 가족들을 위해. (출 15:26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약 5:15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 캄보디아의 김길현 선교사님 내외분, 몽골의 이현호, 김성덕 선교사님 내외분, 중국의 강한성 선교사님 내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간다의 고아원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섬길 최인영(Benjamin)군이 올 한해도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주님의 종으로 잘 준비되어 일 평생 주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2018년 11월 25일 주일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식사의 교제를 통해 성도간에 기쁨과 사랑을 함께 나누시길 바라며, 점심식사를 정성과 사랑으로 섬겨 주신 가족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주님의 몸 된 새언약 교회와 몸이 아프신 가족들 (댁에서 치료를 받으시며, 회복 중이신 이주상집사님과 간호하시는 이종복권사님의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중보기도가 필요한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세요.
- 2018년 남은 한 해 부활의 주인되신 주님과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형통케 하심의 복을 누리시며,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 수요성경공부(예배) 휴강

앞으로의 일정